

전남교육청, 인사이동 앞두고 '설왕설래'

3급 1명·4급 8명 승진 등 최대 700명 이상 이동 장석웅 교육감 "인사청탁하면 불이익" 공개 경고

전남도교육청의 일반직 인사가 12월 예정된 가운데 대규모 승진과 이동인사가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자 일반직 인사에 대한 예

가 12월 10일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교육청 인사위원회는 12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교육청 정기 인사는 상반기(1월)와 하반기(7월)로 나뉘며, 이번 상반기 인사는 지난 7월 655명이 승진이나 전보된 하반기 인사보다 폭이 100여 명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이사관 1명과 서기관 8명에 대한 승진 요인이 발생하고, 지난달 발표된 사무관 승진대상자 31명이 임용돼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7월 1일자 상반기 인사에서도 부이사관 2명과 서기관 9명이 승진되는 등 올 들어 일반직 인사에서 4급 이상의 승진 요인이 많아진 점도 관심이 쏠린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지난 7월 1일자 일반직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 젊고 능력있는 인사들이 전진 배치되는 등 다소 과격 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인사에서도 장 교육감 인사 스타일상 청렴과 능력을 우선시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인사 관련 여러 의견들이 청내에 개진되고, 암묵적인 인사 청탁이 오고 간다는 소문이 일면서 장 교육감이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에 나섰다.

장 교육감은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묵전에 다가온 올해 인사에서는 대규모의 승진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인사에서도 역량 있는 분들 많이 발탁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를 앞두고 설왕설래가 많고 외부인이 저에게 청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보복운전 30대, 뺑소니에 주거침입까지

함평경찰서는 25일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뒤 달아난 뺑소니와 주거침입을 일삼은 혐의(특수폭행 등)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38분쯤 서해안고속도로 함평휴게소 인근 서울 방향 갓길에서 자신이 몰던 SUV를 후진해 B씨(41)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속도로에서 B씨의 승용차를 밀어붙여 갓길에 멈추게 한 후 고의로 후진해 차를 충격했다.

A씨는 차 운행 중 B씨와 사비가 붙었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차 안에 탑승 중이었고 A씨는 차를 후진해 차를 충격한 후 그대로 달아났다.

현장에서 달아난 A씨의 범칙은 충남과 서울에서도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5시쯤 A씨는 서천-공주 고속도로 구간에서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후 서울로 달아났다. A씨는 24일 서울 용산구 한 주택에 무단침입했다가 체포됐다.

갑오징어 잡으려다 해초 밟아 바다 추락한 20대

여수 국동항에서 갑오징어를 잡으려다 해초를 잘못 밟아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한 20대 남성을 해경이 구조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1시19분쯤 여수시 국동 수협 물양장 앞 해상에서 A씨(28)가 바다에 빠졌다는 부인 B씨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접수 4분여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육상과 선박을 고정하는 정박용 줄을 붙잡고 있는 A씨를 발견, 무사히 구조해 연안구조정으로 옮겨 태웠다.

A씨는 사고 당시 미끄러지며 입은 손바닥 찰과상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자택으로 귀가했다.

A씨는 이날 부인과 함께 갑오징어를 잡기 위해 여수 국동 수협 물양장에 도착, 물양장 아래 수심을 확인하던 중 해초를 잘못 밟아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했다.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노인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

25일 오전 6시19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파출소 인근 삼거리에서 A씨(63)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78)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이라 어두웠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술집서 상습 행패·무전취식한 40대 동네주폭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59분쯤 광주 광산구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일행과 술집 주인 B씨(44·여)를 위협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의 가게를 자주 찾던 A씨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거나,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잦은 사비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취자 행패와 소란 등으로 지속적으로 말썽을 일으켜왔고, 그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50여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가 확실치 않고, 추가 범죄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입형택 기자



조선대 구성원과 대치하는 학부모 대책위.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와 교무위원회, 총학생회 등 조선대구성원들이 25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본관 앞에서 '강동완 전 총장 복귀 반대 및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현명한 판단 촉구'를 위한 탄원서 제출 성명서 발표를 진행하자 조선대학교 학부모 및 시민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현수막 앞을 막아 대치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선 '방화살인범' 안인득 "내 변호 내가 하겠다"

'계획적 범행 VS 심신미약' 쟁점...내일까지 진행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의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은 예상대로 안인득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계획성과 심신미약 등 형량을 결정할 부분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상충됐다.

검찰은 "안인득이 철저히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변호인은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각각 주장했다.

25일 오후 창원지법 315호 대법

정에서 창원지법 형사4부(이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는 6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에서는 예비배심원 1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배심원으로 자리했다.

배심원의 의견은 '원고적 효력'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증인신문,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피해자진술, 재판장 설명 등을 거쳐 최종 판결이 선고된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안인득이 평소 아파트 주민들에게 악감정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평소 사이가 나빴던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계획적 살인임을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초등학생인 여학생과 그 여학생의 할머니가 살해당하는 과정을 설명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안인득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는 동안 안 눈을 지긋이 감고 고개를 바짝에 떨고 있었다.

안인득은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에게 자신이 피해를 입었던 부분이 모두 삭제됐으며 "(나의)하소연을 왜 삭제하고 (변호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안인득은 "이렇게 할거면 변호사를 왜 선임했는지, 제가 저의 변호를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안인득의 변호사 측 역시 "사실 관계를 다룰 일은 없다. 본인도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살인할 계획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알고 있었다"고 변호했다. 이어 "(안인득이)피해망상이 강한 분이라 대화가 잘 안돼 저희도 힘들었다"고 변호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